청소년 사이버 포교 '낮잠'

교계 10여개 홈페이지 업데이터 외면
홍보부족 방문객 없고 정보질도 낮아

최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속속 등장해 호응을 얻고 있지만, 불교계는 사이트 개설은 고사하고 기존의 사이트 마저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어 청소년 사이버 포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트는 대한불교 청소년연합회(이하 청교련)와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양정청소년회관 등 10여 개의 단체들이 개설한 홈페이지 뿐이다. 이들 중 교계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만든 양정청소년회관과 디지털상담실 정도만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터 시키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뿐 다른 사이트들은 게시판과 자료실, 방명록 등이 처음 개설했을 때 그대로이다. 또 새롭게 업데이터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신행 정보와는 동떨어진 내용들 투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모단체의 충북지부 사이트는 개설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접속 횟수가 20건도 채 안된다.

이런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는 사이버 포교에 대한 각 청소년 단체들의 예산 지원 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을 꼽는다. 또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보니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자체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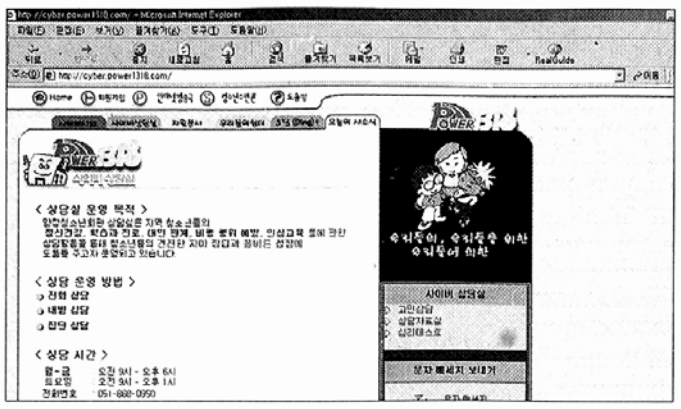
컴퓨터 세대인 청소년들의 성향을 외면한 사이버 포교의 불교 청소년 포교는 앞길이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클릭 하나로 집에서 청소년들이 불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불교 컨텐츠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이트 개설이야 말로 시급하다. 이와함께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 이들로 하여금 신세대 감각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며 새로운 불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디지털청소년 상담실 홍자운 실장은 "사이버 공간은 10대들의 억눌린 욕망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해방공간과 교육적 역할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이용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초기 제작 의도에 맞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터 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비해 일반 사이트는 틴존, 아이두, 아르투디닷넷, 한공부닷컴 등 1백 여개가 넘는 내실있는 사이트가 청소년들을 손짓하고 있다.

이들 중 게임, 영상채팅, 음악, 댄스, 쇼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틴존(teenzone.co.kr)과 청소년들의 학업 및 취미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아르투디닷넷(rtod.net)은 개설된지 1달만에 방문자가 2만명을 넘는 등 인기가 높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10대를 위한 다양한 불교 청소년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야 하고, 또 신세대 감각에 맞는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9월 새단장한 양정청소년 회관 사이트.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②

■ 손의 색깔과 건강

'손 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수습 불능의 상태로 들어섰을 때 쓰는 말이다. 건강의 경우, 어떤 시술이나 약물로도 치료 불가능한 상태를 이른다. '손이 없다'는 말도 있다. 이 경우의 손은, 일손 즉 노동력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인간사의 다양한 국면을 '손'과 관련지어 표현한 예는 무수히 많다. '손을 떼다', '손을 벌리다', '손을 잡다', '손을 타다'고 하는 등.

손의 색깔 건강 '신호등'

청색-순환기·장기 이상

백색-저혈압·무기력증

이렇듯 손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상징할 정도로 인간의 '인간 다움'을 지켜 주는 신체 기관이다. 따라서 손의 불편은 행동의 제약을 수반한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온신 자체가 거북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무방비 상태로 추위에 떨 때도 가장 먼저 손끝부터 아리기 시작한다. 특히 생손앓이 할 때의 극심한 통증은 말로 다 못할 정도인데, 이는 손가락 끝에 감각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손이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일 텐데, 전문가들은 손의 색깔과 건강 상태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분홍기는 양호, 청색기는 순환기나 장의 피로를, 적색기는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의 과다, 백색기는 저혈압이나 무기력증을 나타낸다.

청년불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뭘까

대불청 26일부터 지도력 교육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침체된 청년 포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불청은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1회에 걸쳐 조계사 문화교육관 2층 설법전에서 '청년의 새로운 실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교육 강좌를 마련한다.

교양교육과 기본 교육, 전문 교육 등 3단계로 나눠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조계사 청년회와 서울불교청년회, 대불청 서울지부 임원 50여명을 초청, 불교청년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을 강의와 워크숍,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피교육자와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 10여명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이후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26일 시민운동의 환경과 과제(김병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11월 2일 자기관리, 조직 관리(선세갑 시민사회네트 소장) △11월 9·16일 프로그램 기획과 회의 진행법(송혁관 한국휴먼네트워크 이사) △11월 30일 민속과 문화 운동의 결합(전재경 한국 법제연구원장) △12월 14일 참여불교운동의 방향과 전망(박광서 재가연대 대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가을 사찰 문화기행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29일 해인사와 직지사로 '가을 사찰 문화 기행'을 떠난다. 이번 답사는 108배 정진, 참선 수행, 성보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혜능 보육원 원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직지사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고승 진영전'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043)257-0807

대불련 생태학교 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11월 21일까지 동의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생태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이 '문명의 발달과 생명 운동'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전국 귀농운동본부 이병철 본부장은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이 좋다'란 주제로 농촌에서 일했던 생생한 경험담을 털어 놓는다. (051)818-4113

청교련 장애인 봉사교육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15일 마포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00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함께하는 밝은 세상'을 열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이해, 점자도서 입력 방법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원 봉사자 전문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을 마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내주부터 시각장애인 봉사에 나선다.

주부 신행담

백일홍 나무처럼 ③ · 〈끝〉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거듭한다. 그저 존재하지도 않는 관념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웃고 울며 화내고, 좋아하거나 또 미워하고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언제 나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마음을 집중해 나를 지켜 보는 수행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좌선시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나를 관찰하고, 내 마음이 들떠있는지 내 마음이 밖에 나가있는지 내 마음이 불안한 지를 지켜본다. 불안하면 불안한 마음을 살피게 된다. 그러고 나면 불안한 마음이란 본시 없는 것이란 걸 알게되고 마음이 편안해 진다. 내가 40이 넘게 살아왔지만 내 마음을 관심갖고 지켜본 일이 없었다. 그저 감정에, 오욕칠정에 휘둘리며 살아온 것인데, 마음을 알려면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다.

슬프다, 괴롭다, 근심된다, 평화롭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내 마음속에 묶어 놓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란 절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린 계속 대상을 밖에 두고 끝없는 끄달림속에서 살아 왔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좌선과 경행, 주선과 와선으로 나를 지켜보며 내안을 관찰하며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걸 알았다.

나는 6박7일간의 위빠사나 집중 수행을 통해 과연 인생이란 마음먹기 따라서 정말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평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요즘도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수련때처럼 마음을 관찰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자상하게 위빠사나 수행을 가르쳐주신 붓다 락기타 스님과 불교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불교는 과학이다 라고 일러주신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나의 모습에서 마음공부를 하고자 노력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남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 것 같다. 정말 불교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수련회에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20년동안 내 곁에서 꾸준히 온화한 모습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그리고 말로 가르쳐주고 지켜봐 주신 형님이 너무나 고맙기만 하다. 형님은 사실 감내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번 겪은 사람임에도 전혀 내색 안하고 항상 편안하고 잔잔한 모습으로 나의 의지처가 돼 주셨다. 형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존경하는 형님, 앞으로도 대원사의 듬직한 백일홍 나무처럼 늘 제 곁에 계셔주시고 좋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만. 불자로서 아름답고 진실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께요."

서회순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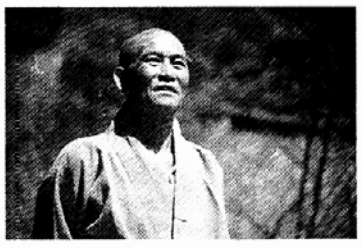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불안한 마음은 본래 없는 것"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붙자 가족을 위한 ___

뉴질랜드 특별 어학 연수단 모집

삼보에 귀의 하옵고,

남 태평양 한 가운데,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영국 귀족 문화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축복 받은 나라 뉴질랜드. 불과 100 여 가정만이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며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꾸준히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드넓은 부지에 부처님 모실 법당도 조출하나마 마련하였습니다. 경사스럽게도, 이번에 저희 남국정사가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부처님의 진신사리 한 과를 기증 받아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 감축하고 또 감축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허술하게 모실 수도 없고, 또 절 집에 탑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라 저희들의 능력에 과분한 불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남국 정사 신도들은 진신사리를 모실 탑 건립을 위한 불사 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어학 연수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 그야 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극락과도 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보살들과 같이 친절하고 푸근합니다. 영국 귀족 문화의 전통과 현대 서양 문화의 조화가 절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스티디 투어 1기생 잉꼬게임 장면

연수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여러가지 옥내외 활동을 개최하여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출발 전 부터 체류기간, 그리고 한국 도착 까지 남국정사 모든 불자 가족들이 안전하고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자녀들의 영어 습득, 새로운 문화 경험, 그리고 성스러운 불사 동참, 이 세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출발일 : 2001년 1월 5일
기간 : 5주, 8주 선택
대상 :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생
모집인원 : 선착순 60명
신청 마감일 : 11월 20일

참가비 : 395만원(5주), 645만원(8주)
※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제 경비 포함 (개인 용돈 외 추가 비용 없음)
한국 연락처 : 02-3392-4411~2
뉴질랜드 연락처 : 001-649-412-6422
(남국정사) 001-649-533-0200

동안거 선방 안내

보덕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안거선방 안내를 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 스님들께서는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진 하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주 소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4-1

문의처 : 02) 914 - 4235

보덕선원장 오본 합장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본 사	02) 737-8881
강릉지사	033) 643-5599
고성지국	055) 672-0078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부산지사	051) 463-5331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울산지사	052) 257-7737
진주지사	016) 585-2120
제주지사	016) 695-6885
충청지사	042) 527-0559
일본지사	031) 713-5111